

제5차 Industry 4.0 학부생 콜러키엄

AI의 정치적 도구화와 민주주의

AI가 정치적 도구로 작용할 때, 민주주의는 성립될 것 인가?

| Presenter. 성기종, 신민규



유발하라리 (현 히브리대학교 교수 겸 작가)

알고리즘은 나에게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.
그 알고리즘은 내 느낌과 감정까지 조종할 수도 있다.

“민주주의는 살아남기 어렵다.”

- 2018 밴쿠버 TED Conference 中에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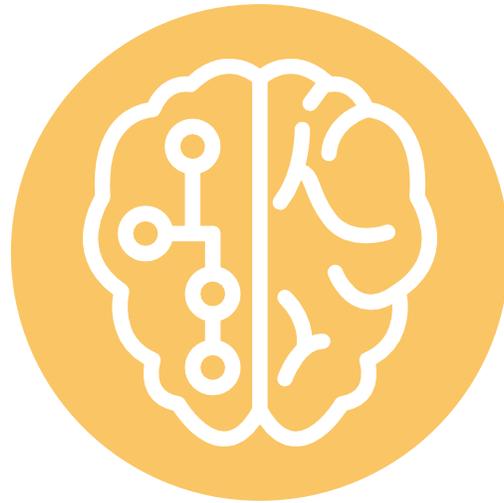
AI의 정치적 도구화란?

대전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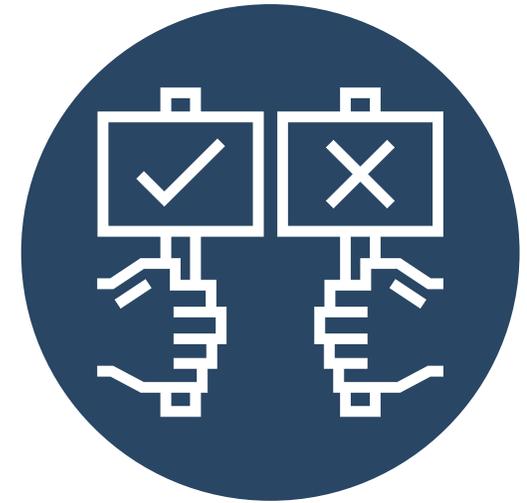
전제 1

여기서 **‘정치적’**의 의미란, **정책, 정부운영**에 무게를 둔다.



전제 2

AI의 정치적 도구화는 **필연적**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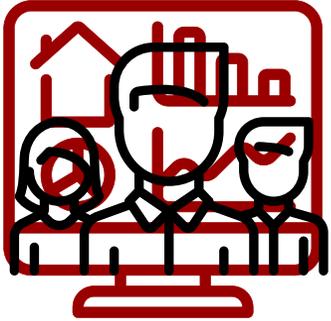


전제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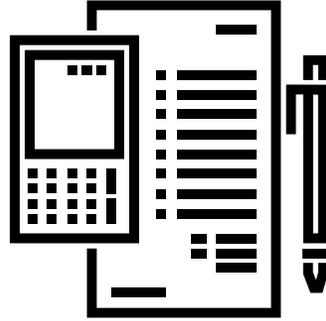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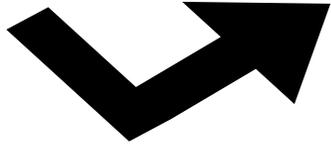
민주주의의 가치는 **유지**되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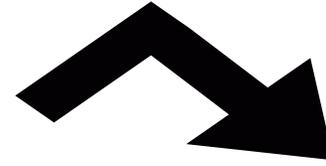
AI의 정치적 도구화란?



AI가 결정?



민주주의의 핵심요소
'세울'



| 충분한 데이터와 발전된 기술이 있다면,

최적의 세울을 AI가 파악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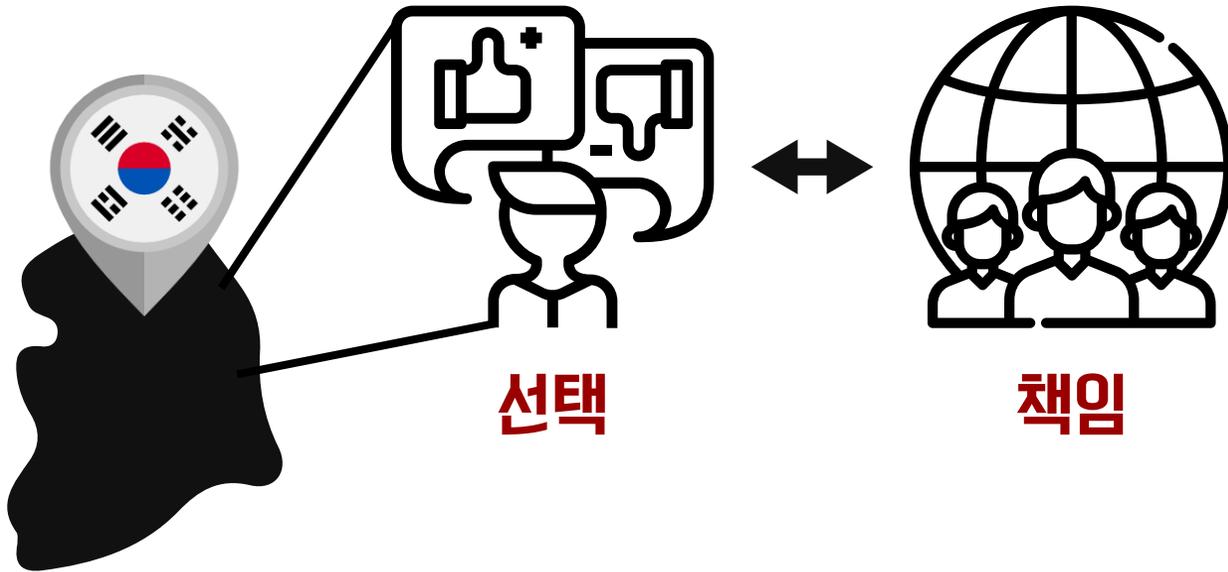
민주주의란?



민주주의

(국민의, 국민에 의한, 국민을 위한 정치)

: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,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
(또는 그런 사상)



+



선거를 통한
대표자 선출

! 정치적 도구화로서 AI의 역기능 AI의 잘못된(편향된) 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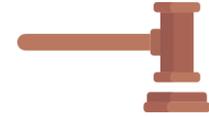
ProPublica(2016)

“Risk Scores(위험점수)를 검증하겠다.”

? 형사 범죄자의 재범률을 알고리즘으로 평가한 것



+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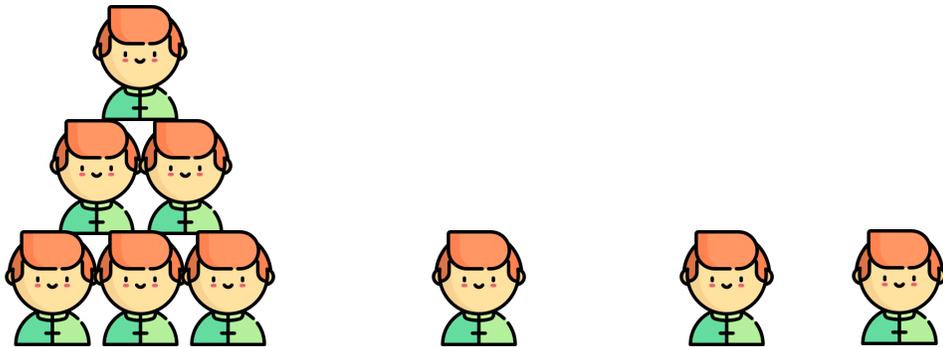
민간 기업의 알고리즘은 작동원리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.

판사들은 재판에 쓰이는 위험점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음.

Risk Scores



※ 1점부터 10점까지 고르게 받은 흑인



※ 절대다수가 낮은 점수의 저위험군으로 분류

실제 재범률

<고위험군>



재범률 76.5%

>



재범률 55.1%

<저위험군>



재범률 47.7%

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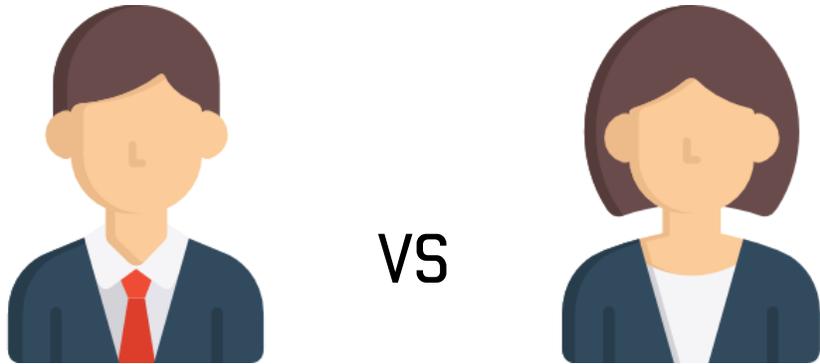


재범률 28%

※ 실제 재범률은 백인이 더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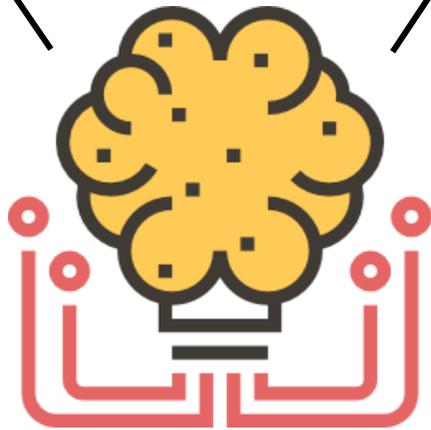
“그 날의 AI는 인종주의자였다.”

! 정치적 도구화로서 AI의 역기능 정치적 도구의 편협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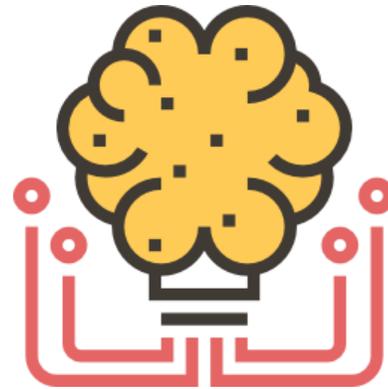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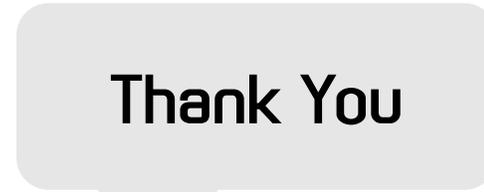


후보자A

후보자B



동일한(유사한) AI의 사용



“우리의 표는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표인가”

**I 정치적 도구의 편협화로 인한
국민의 주권이 무의미해 질 수 있음**

! **정치적 도구화**로써 AI의 역기능 **정치적 공고화**

정치적 공고화란?

: 정치적 분야에서서의 굳고 단단해짐을 뜻함.
즉, 기존의 **정치적 사상이 굳어지는 현상**

〈개인차원〉

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AI의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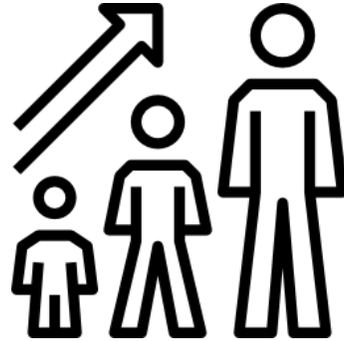


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지속적인 추천
(평소 떡볶이집을 자주 찾는 사람에게 주변 떡볶이집을 추천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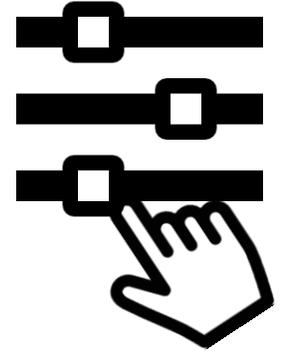
정치적 **편향성과 부동성의 상승**

〈집권당차원〉



AI의 도입을 통한 **성과**

+
(or)



AI의 **정밀한 조작**을
이용해 정책(여론) 조정



집권당에 대한 **정권 공고화** 발생



DISCUS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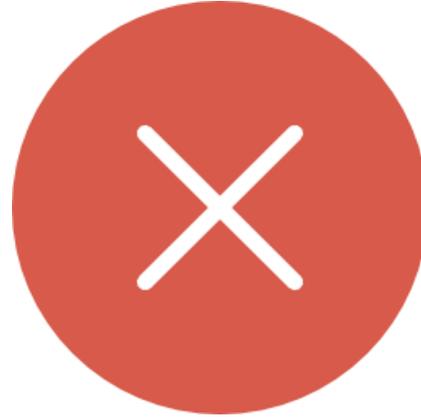
| Discussion. 1

AI를 **정치적 도구로 사용**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

다른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?



정책적 성과의 비약적인 향상



반대를 위한 반대의 약화



직접민주주의의 실현

객관적인 지표
+
질적/양적으로 충분한 데이터
||
가시적인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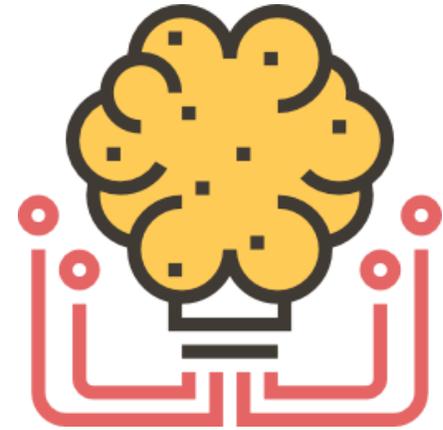
반대를 위한 반대?
: 어떠한 안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
안건의 **발언자**가 반대의 **정치적 성향**을
가졌기 때문에 **반대하는 현상**

* AI의 알고리즘
= 개인의 의견 x, 객관적인 지표의 총합

기술 발전과 네트워크 연결의 심화
⇓
직접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게 될 것.



+



지역주의의 정당, 현저히 낮은 투표율 등
객관적인 지표에서 **민주주의의 내용적 가치**
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**대한민국**

AI의 정치적 도구화



| Discussion. 2

AI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
민주주의는 **진일보** 할 것이다.

VS

AI의 개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
실질적인 **가치 저하**를 가속시킬 것이다.

AI를 유용하게 '이용' 하고 있을 뿐 의지하고 있다고
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다.

⋮

AI가 최적의 세울을 대신 파악해 줄 수는 있지만
최적의 세울이라는 기준은 인간이 세운다.

DISCUSSION. 3

결론

인공지능이 선악과가 될지, 찬란한 성배가 될지는
결국 인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.

⋮

역사적으로 권리가 확산되는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도 분명
그 권리를 인정받겠지만, 절대적으로 인간을 위협할 수는
없을 것이며 위협해서는 안된다.

독어독문학과 성기종



독어독문학과 신민규

Vielen Dank !

출처

시사IN 인공지능에게 민주주의를 맡기시겠습니까?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oid=308&aid=0000023592&sid1=001&lfrom=kakao>

YOUTUBE 유발하라리 2018 TED Conference 강연영상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HHb7R3kx40>

두산백과 민주주의

http://www.doopedia.co.kr/doopedia/master/master.do?_method=view&MAS_IDX=101013000842540

AITIMES 중국, 뇌종양 진단에서 AI가 의사 앞질러

<http://aitimes.co.kr/news/view/46945>